

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

- 백화점 서점 공간 늘어난다-전국에 40~50곳...소형 고객 자연스럽게 독서 유도(동아일보 1월19일 宋煥彥기자)
-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동식물 총망라-「韓國의 自然」시리즈 4권 나와(서울신문 1월22일)
- 국내 첫 출판박물관 8월 개관-영등포 삼성출판사 내에 /「月印釋講」 등 천여점 전시...화자·한지 제조과정 재현도(한국일보 1월23일)
- 「아프리카 通史」 번역본 나온다-阿대륙 역사·문화 총체적 조명(한국일보 1월23일)
- 민중문학 시각서 한국문학 분석-문학평론가 任軒永씨 「한국현대문학사상사」 출간(한국일보 1월23일)
- 여성 실용서 내용·종류 '새바람'-실내 장식·공예관련 등 출간 20여종 넘어 / 일부 소비풍조 조장...더 값싼 책 많이 나와야(한국경제신문 1월24일 李成九기자)
- 在北-越北작가·작품 첫선-김윤식·정호웅씨,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 「한국근대리얼리즘작가연구」 펴내...문학사 속에 구체적인 위상 정립해야(중앙일보 1월25일 奇亨度기자)
- 서점 '대형화 바람'-서울 20, 지방8곳서 잇달아 확장(경향신문 1월25일 安健熾기자)
- 대형서점이 늘고 있다-2백평 내의 규모로 휴식공간 설치 등 서비스 개선도(한국일보 1월26일 金龍善기자)
- 共產圈서적 도입기준 완화해야-비정기적인 학술서적에 대해서는 규제풀어야(경향신문 1월26일 朴正鎭기자)
- 다시 관심끄는 光州사태 다룬 책-'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5·18광주민주항쟁증언록」「光州보고서」 등 증언, 수기, 르포가 다수(동아일보 1월26일 宋煥彥기자)
- 격랑헤쳐온 금세기 美術史 조명-20세기 미술운동총서(열화당) / 비평관점 갖게 하는 현대미술 안내

- 서 / 30대전반의 미술 전공자들에게 의해 이뤄져(매일경제신문 1월26일 文逸기자)
- 문학作法 안내서 연속출간-소설위주에서 창작 분야 망라 / 「글 더 잘쓰기 총서」(보성사) 올해 완결 / 늘어난 독서인구의 글쓰기 욕구 충족에 기대(스포츠서울 1월27일 朴載均기자)
- 全集類계열 獨走...「調和」가 方向舵-出協 회장 특이한 간선제... 선출위한 정기총회 오늘 열려(한국경제신문 1월27일 李成九기자)
- 대학가 原書교재 「기근」-저작권협정따라 복제물 판금 여파 / 정부의 번역지원책 마련돼야(한국일보 1월28일 李啓聖·李伯圭기자)
- 詩로 그린 감옥생활-옥고치른 문인들 잇따라 작품화 / 「나의칼 나의피」(김남주 저, 인동) 「겨울바다」(김영현 저, 풀빛) 등 출판...암울한 체험 깊이있게 표현해(동아일보 1월28일 高美錫기자)
- 베스트셀러는 동시대인의 공동 체험-김언호씨(한길사 대표) 「출판저널」 제12호에 발표 / 사회상황 정직하게 반영한 것으로 경시풍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스포츠서울 1월28일 윤홍식기자)
- 「太白山脈」 「홀로서기 2」, 새해 들어 단연 두각-독서인구 지식인, 청소년층으로 양분 현상 / 「꼬마철학자」 「라임오렌지...」는 10대에 인기(중앙일보 1월30일 奇亨度기자)
- 인물연구서적 출판활발-방대한 자료수집, 치밀한 연구분석으로 인물연구 / 「염상섭연구」 「鄭汝昌研究」 등 20여종 펴내(한국일보 1월30일 金龍善기자)
- 日帝下 流民詩 198편 발굴-영남대 尹永川 교수, 한때 묶어 시집 출간...참혹한 삶을 생생히 표현, 대부분 무명·월북시인 / 1920년대 이후 작품...「분단문학」 극복에 활기(중앙일보 2월1일 奇亨度기자)
- 전집저작권 해의 첫수출-금성출판사의 총60권 전집「애니메이션 세계명작동화」 그리스에 출판권 공급 합의(일간스포츠 2월1일 朴載均기자)
- 장애자 문학작품 잇단 출간-김재찬, 宋明喜 등 활발히 활동 / 金玉珍시집은 베스트셀러 / 인간적 고통 극복한 감동의 언어 돋보여(조선일보 2월2일 曹良旭기자)
- 출판계 새바람, 「인물평전」 활기-李滉, 洪大容등 1년 새 10여종

- 나와...성장환경, 교우관계 등 재미있게 그려 독자에 친근감 줘(동아일보 2월2일 宋煥彥기자)
- 美國책 복사판 판매 문제화-워싱턴 '지적소유권 협상' 쟁점으로 부각 / 미국측, 86년 합의 위반 들어 301조 발동 위협(동아일보 2월3일 宋煥彥기자)
- 한미관계 조명한 문학작품 쏟아진다-기치촌 소개 달피, 政經·문화 규명...무조건 우방, 약소국 인식, 강한 '입김' 등 비판도(중앙일보 2월3일 奇亨度기자)
- 著作権 조정 委 본격활동 나신다-출판, 음악저작권, 위탁관리법인 인가따라 / 조정 거치면 소송법상 판결 효력 / 전문가 양성, 자료센터 운영 등도 계획(한국일보 2월4일 崔成子기자)
- 신예평론가들, 80년대 문학 정리 시도-「전환기작가총서」「올해의 詩·小說 선집」 발간돼(서울신문 2월4일 任英淑기자)
- 鄭芝溶, 金起林의 문학세계 출판 활기-전집나오고 「鄭芝溶-시와 산문」은 보름만에 재판씩어(동아일보 2월5일 宋煥彥기자)
- 美, 대학교제도 301조 경고-지적소유권 협상...복제 2백만부 수거요구(동아일보 2월5일)
- 복제서적도 301조 발동 움직임-지적소유권협상 난항거듭 / 美, 물질특허 보호대상 한국에 제시(중앙일보 2월5일)
- 지적소유권 주요현안-미국측의 요청, 한국측의 조치, 주요쟁점 사항을 도표로(한국경제신문 2월5일)
- 한국, 복제서적 로열티 지급 제의-지적소유권 협상 시작 / 美, 소각 대신 단속강화 요청(서울신문 2월5일)
- 출판계·서점가에 中共바람-직접교역 움직임 등에 자극받아 / 대형서점엔 특설코너까지 등장(서울신문 2월5일 朴康文기자)
- 분쟁? 타협?-재고 복제도서 301조 압력 / 한국측의 협상안 美서 거부...外書출판협선 반박성명도 발표해(조선일보 2월5일)
- 문혔던 外國大作 잇단 출간-「카잔차키스 전집」, 「장 르느니에 전집」, 막심 고리키의 작품 3권 소개(조선일보 2월5일 曹良旭기자)
- 외서복제 해결의 順理-한미간 지적소유권 협상...마찰과 대결의 연속 / 우리 지식, 우리 권위로 꾸민 교과서 나와야(동아일보 2월6

- 일 사설)
- 정지용·김기림 문학세계 출판 잇달아-남북작가 해설서·연구서 해금이후 활발 / 지금까지 연구서 2종 등 12종 나와(한국일보 2월6일 金龍善기자)
- 해적판표제 '양성화' '암류' 異見-한미간 지적소유권협상 결론못내...3월 재개(한국일보 2월7일)
- 복제교과서 단속 약속-美선 로열티 지급보다 수거·암류 요구(서울신문 2월7일)
- 外書 무단복제 판매 강력단속-한국, 美에 약속...서점내 복사판코너 폐쇄(한국경제신문 2월7일)
- 출판계, 「문화예술공간」 확장 범-민음사, 열화당, 한길사 등 4社 공동사육 추진...연건평 1700평의 7층 규모 / 음악 등 공연, 저자와 독자 만남의 광장으로 / 三省선 출판박물관 9월개관(경향신문 2월8일 安健熾기자)
- 출판 새풍속, 「속편시대」-「홀로서기」「꼬마 철학자」「비밀일기」 등 베스트셀러 작품이 주류 / 작가·제목보고 '책고르기'...역지 '속편' 많아 문제(중앙일보 2월8일 奇亨度기자)
- 「文知」 2세대, 민중문학 비판-성민엽, 정과리씨 등 「문학과 사회」 창간호서 민중문학 비판론 제기... 「사회적 역할」 강조한 「창비」 계열에 論戰시사(조선일보 2월9일 吳太鎭기자)
- 郷土研究誌가 쏟아지고 있다-

- 지난 1월 한달동안 7종 출간 / 방대한 자료, 컬러사진 등 돋보여...팜플릿 단계 넘은 연구서 수준(서울신문 2월9일 趙佑石기자)
- 「中國市場정보」 내달 창간 서둘러-한양대 중소연구소 간행 / 직접교역, 투자 대비해 실무지침, 동향분석 다뤄(한국경제신문 2월9일)
- 우리소설 영역이 넓어진다-일반 회사원의 삶, 특히 중간관리자들의 사내생활과 애환 소재 늘어나...조직 속에서 점차 무력해져가는 개인들의 변화과정을 생생히 묘사(한국경제신문 2월11일 朴聖姬기자)
- 軍생활 다룬 소설 금기벗고 기지개-「塞下曲」「高地平話」 등 풍성...소설의 '주제확대'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동아일보 2월12일 高美錫기자)
- 잡지 춘추전국시대 예고-언론 활성화의 분위기에 힘입어 잡지 창간 늘어나 / 87년 한해동안 278종의 잡지가 등록해(한국일보 2월12일 金龍善기자)
- 中共관계서적 '풍요속의 빈곤'-사상서, 評傳 등 거리가 번역물...국내 저작은 기행문에 머물러...각계의 다양한 저자발굴 시급(조선일보 2월12일 曹良旭기자)
- 「허황된 「명랑소설」, 어린이 독서심리 誤導"-아동문학가 曹大鉉씨 「출판저널」 제13호에 비판제기(조선일보 2월12일)

알림

본지 '書評·신간소개' 案内

「출판저널」은 87년 7월20일자 창간호의 창간취지에서서도 다짐했듯이, 국내에서 출간되는 다종다양한 책들 가운데서 중요한 책이나 소개할 가치가 있는 책들을 가려내어 어떤 형태로든 빠짐없이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모저모 시도해온 저자 인터뷰, 출판화제, 책의 뒤안, 북다이제스트, 취재서평, 종합서평 등 다양한 형식의 기획기사·취재기사와 記名서평, 신간안내, 200자 안내, 어린이책 들춰보기, 화제의 책, 이색출판 등 고정란이 바로 그 본보기입니다.

그러나 본지는 지금까지 신간도서의 情報源을 오직 出協의 납본도서에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一過性的인 납본도서만으로는 취재 및 편집상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각 출판사는 신간도서의 소개를 희망하는 경우, 출간 즉시 2부를 보내주시면 본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출판저널」 편집부